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법조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가권력이 제한되는 국가를 말한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이다.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정의(定義)이지만 이 정의가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온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을 때이다. 당시 이 헌법 1조는 윤석민이라는 작곡가에 의해 노래로 작곡되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졌다. 법조문에 불과하고,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던 이 조항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언어로 뜨겁게 부활하였다. 헌법 제정의 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정체성의 절절한 표현이었다.

요즘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의문이 아니라 답답함과 울분이 배어있는 물음이다. 교

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이듯이 국가가 국가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질문 이리라.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정권 때 발생한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박근혜 정권하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밀양, 청도에서의 송 전탑 반대 투쟁, 홍천에서의 끈질긴 골프장 투쟁 등에서 민낯을 드러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는 거리가 먼,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력으로 짓밟는 ‘조폭’의 모습이였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조선왕조시대에는 신민(臣民)으로 살았고, 일제식민지 때는 노예로 살았으며, 해방이 되면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자각된 의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 헌법 조문과 현실 정치는 계속 ‘따로국밥’의 행태를 보였다. 자유당 시절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프란체스카 여사를 ‘국모’로 모셨고, 공화당 시절에는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위선적 수식어를 용인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각하’로 모셨다.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군벌잔당이 잠시 권세를 누리며 ‘각하’로 군림하였지만, 명분 없이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무뢰배’일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과거 모든 독재정권이 가능했던 것은 아직 주권재민(主權在民)의식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민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었다. 4·19, 5·18 등 민주화를 위한 모질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겪으면서 비로소 조금씩 형성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세우면서, 그동안 성장한 주권재민의식이 현실 정치지형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그것은 분단이테올로기의 공세로 숨어버리고 옛 독재정권시대로 다시 회귀한 듯하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일이 이리도 지난(至難)한 일인가? 인간의 악(惡)은 권력자들에 의해 더욱 구조화되는 역사를 보여 왔다. 창세기에

의하면 거인인 네피림(창5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이 땅에 출현하였다. 신적(神的)인 요소와 세속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겉으로는 신적인 모습을 표방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안으로는 자신과 체제의 이익을 피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악의 지배력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공고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였다. “땅이 패괴해지자” 하나님은 마침내 홍수심판을 단행하셨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셨다.

오늘날 권력자와 자본가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 전두환 시절 파출소 유리창마다 씌어있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을 생각해 보라 - 인간이 지닌 자본주의적 이기심을 교묘히 결합시켜 거대한 네피림이 되어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죄악이 구조화되고 널리 퍼졌다. 하나님의 자리에 ‘맘몬’이 앉았고, 제사장들은 그 앞에 절하고 있다. 아합왕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 모두가 바알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였다.

국가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상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정한 하나님의 도구일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생존과 안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그 권한을 위임해준 기관이다. 국가는 이 위임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집행할 의무를 지닌다. 오늘 대한민국은 잘 하고 있는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인내심을 갖고, 호흡을 길게 하여 멀리 내다보면서 걸어가야 하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닌가! 農